

[활동 1: 나쁜 느낌이 들어요]

- ① 손 인형으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나쁜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.
- (아저씨 목소리) 우리 조리~ 예쁘구나. 삼촌이 사진을 찍어줄게.
 - (아저씨 목소리) 옷을 벗어볼래? 찰칵!
 - (아이 목소리) 싫은데...
 - (아저씨 목소리) 오늘 삼촌이랑 놀았던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야. 알았지? 약속!
 - 조리는 오늘 참 힘든 일이 있었구나. 기분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.
 - 누군가 내 몸을 함부로 만지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면 나쁜 기분이 들 거야.
 - 만약 누군가 나에게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
[활동 2: 나쁜 느낌이 들었을 때 선생님과 부모님께 알려요]

- ② 나쁜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눈다.
- 나쁜 느낌이 드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 - 만약 나쁜 비밀을 지키려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?
 - 선생님과 부모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구나.
- ③ 나쁜 느낌이 들었을 때 꼭 교사와 부모(보호자)께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회상하며 챗트를 불러본다.

■ 챗트가사

이리 와 봐~ (싫어요!)
벗어 볼래? (안돼요!)
만져 보자! (하지 마세요!)
나쁜 느낌 들고, 위험할 땐, 나처럼 용기를 내봐!
엄마! 아빠! 선생님!!! 도와주세요!!!!
나쁜 비밀은 지킬 필요가 없어!
말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생겨! (또 생겨?)
꼭꼭 말하자! 선생님과 부모님께
꼭꼭 말하자! 도움을 청하자!